

도덕경 해설

#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

고지선위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도덕경 15장 해설

수도자가 도를 깨닫고, 도를 행함에 있어서 그의 내면의식의 상태와 행동 함에는 무도인(無道人)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인의 내면의식의 상태와 삶이 무도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굳이 우리는 노자의 도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속세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도인의 삶과 세속인의 삶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경의 진수를 통달하고자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알고 있는 바다. 보통 사람들처럼 속세에 발을 붙이고 살지 않고 속세를 등지면서 인적이 드문 한적한 심산계곡에서 왜 어렵고 힘든 수행을 하고 수많은 세월을 보낼까? 그렇게 해서 도인이 도를 깨닫고 어느 한 경지에 있다면 분명 세속인과는 어떤 다른 면모와 정신세계가 있을 것이다. 도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지못 이러한 세계가 공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장은 물을 찾는 목마른 이에게 시원한 물을 주는 것처럼 도의 실체에 대한 그 궁금증에 답을 주게 되리라 본다.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고지선위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태고적 순수본성에 다다른 도인은 미묘현통함이 깊고 깊어서 알 수 없다.

도를 깨달아 순수본성에 다다른 도인으로서 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묘현통한 도를 전한다는 것이 난감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써 어떻게 그 깊고 오묘한 이치를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夫唯不可識 故強爲之容(부유불가식 고강위지용): 대저 그 심오한 내면의식의 세계를 알 수는 없지만 굳이 억지로 형용해 보겠



다.

豫焉 若冬涉川(예언 약동섭천): 머뭇거리기(신중하기)는 마치 겨울 냇가에서 살얼음을 건너는 것과 같다.

여기서 왜 도를 깨치면 신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머문 세상은 도가 없는 반생 명적이고 도덕이 무너진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인은 삼가 경계하고 조심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猶兮 若畏四隣(유예 약외사린): 주저하기(조심하기)는 마치 사방 이웃한 것에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이 세계가 거대한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어 하나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때문에 모든 만물을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혹여 생명에 상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여 조심하는 것이다.

儼兮 其若容(객)(엄해 기약용(객): 근엄하기는 그것이 마치 손님과 같다.

도인은 떳떳하고 당당하기에 위엄을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涣兮 若冰之將釋(환해 약빙지장석): 풀어지기(녹기)는 마치 얼음이 녹는 듯하다.

얼음이 녹으려면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하듯이 도인의 마음이 자애롭고 온화함으로 냉정하고 각박한 세상을 풀어줌을 말한다.

敦兮 其若樸(둔해 기약박): 도탑기는 그것이 마치 통나무와 같다.

통나무는 곧고 우뚝하듯이 도인의 마음 또한 도탑고 견고하다는 것이다.

曠兮 其若谷(광해 기약곡): 넓기는 그것이 마치 골짜기와도 같다.

물이 산에서 골짜기로 모이듯, 이것

이나 저것이나 이해하고 받아들여 포용한다는 것이다.

混兮 其若濁(혼해 기약탁): 섞이기는 그것이 마치 혼탁한 것과 같다.

세상에 섞여 있으면 마치 도인의 내면세계도 혼탁한 것과 같다.

孰能濁以靜之徐清(숙능탁이정지서청): (도인은) 능숙하게 탁한 것을 고요히 하여 서서히 맑힐 수 있고

孰能安以久動之徐生(숙능안이구동지서생): (도인은) 능숙하게 지속적인 활동을 하여도 서서히 생동하여서 편안하고 안정되는 것이다.

葆此道者 不欲盈(보차도자 불욕영): 이처럼 도인은 욕심으로 온갖 것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夫唯不盈故能蔽不新成(부유불영 고능폐불신성): 도인은 오직 채우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개팔하라면 새로이 뭉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인이 순수본성의 내면의식을 회복하면 항상 맑고 고요하여 자유함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얻고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도인의 내면 의식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살펴보았다. 우리가 도를 닦아 깨달아서 어느 한 경지에 다다른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참다운 인간의 순수본성을 회복하고, 그리하여 그것을 항상 견지하고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기는 삶

#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

말 대신에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호감(好感)을 받는 비결이다

품격(品格)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편협(偏狹)해지고 고정관념(固定觀念)에 휩싸여 남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도 모르게 웬지 뻔뻔스러워지고 우연한 행운(幸運)이나 바라고 누군가에게 기대려 한다.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남을 섬기기보다는 대우(待遇)를 받으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진정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심통을 부리지는 않는지, 전철에서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며 훈계(訓戒)하려 하고 누가 자리를 양보해주기를 비라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마음이 늙으면 몸도 따라 늙기 마련이다. “남자는 마음으로 늙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젊은 날은 앞서 위에서도 안 된다.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젊음을 이미 누렸으며, 그런 시절을 모두 겪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대견스러움을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경륜(經綸)이 쌓이므로 더 많이 이해(理解)하고 배려(配慮)하고 너그러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아집(我執)만 강해지고 속이 좁아지는 사람이 많다.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성취감(成就感)을 느끼며 감사(感謝)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넓고 큰 마음을 갖는다. 반면 늘 열등감(劣等感)에 사로잡혀 패배의식(敗北意識)으로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不平不滿)을 늘어놓는 사람은 작고 닫힌 마음으로 살아간다. 자기보다 어리거나 약자인 사람에게 대우를 받으려 하고 편협해진다. 그렇지만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매사가 부대끼게 된다. 어떻게 살아왔던 지금의 이 삶을 이왕(已往)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아야 자기 주변에 평안함이 흐른다.

천덕꾸러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身體)와 환경(環境)을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매일 목욕(沐浴)을 하고, 분기별로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항상 용모(容貌)를 단정히 하여 구질구질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인의 장광설(長廣舌)과 훈수(訓手)는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말 대신에 박수를 많이 쳐 주는 것이 호감(好感)을 받는 비결이다. 회의(會議)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參席)하라. 집에서 칩거(齷居)하며 대외 활동을 기피(忌避)하면 정신(精神)과 육체(肉體)가 모두 병든다.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일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해야 한다.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待接)을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이웃사람들로부터는 존경(尊敬)과 환영(歡迎)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든 만큼 살아온 날들이 남보다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랜 경륜을 쌓아왔으므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이웃사람을 포용함으로써 나이들이 얼마나 멋진 지를 보여주며 살았으면 좋겠다. “주름살과 함께 물 위가 갖추어지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위고의 말처럼 마음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편집부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아아 잊으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던 날을  
이제야 갓으리 그 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겨레

1950년 6월 25일, 길으로는 한반도를 무대로 동서이념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발발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육(肉)이오' 전쟁이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하나님의 천손민족인 단지와 자손을 통해서 장차 온 우주의 운명을 걸고 마귀와 사생결단의 최종 혈투를 벌여야만 하는, 진리의 철장을 쥔 50세의 검투사가 1980년 10월 15일 '영(靈)으로' 펼쳐지게 될 아마겟돈 전투의 작전을 먼저 개시한 전초전이었다. 적들을 한반도 최후방 낙동강까지 유인한 후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의 보급로를 완전 차단함으로 서울 재탈환에 성공하였고, 마침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마귀는 장차 이긴자 구세주를 배출할 천손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육이오'를 통해 30년 후 마귀신과의 최종 결전에서 '구세주 이긴자'란 명류관을 받게 될 '분노의 백전백패 검투사'를 조련하기 위한 지독한 연단의 과정으로 삼으셨다.

분노의 절정, 아마겟돈 전쟁

의분에 찬 병사들은 휘발유와 폭탄을 안고 적의 탱크에 맨 몸으로 뛰어들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 2백 50만 이상의 희생자를 낸 일국의 전쟁

에 대한 분노가 이 정도일진대, 하늘나라 에덴동산을 6천년 동안 마귀에게 빼앗긴 채 비참한 노예생활을 해 온 하나님 입장에서의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한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 전쟁에 입했던 분노는 어떠했을까? '분노가 공중권 세 잡은 마귀의 하늘을 찢러 무너뜨렸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1980년 10월 15일은 우주 전체의 운명을 건 마귀와 하나님의 최후 결전이였다. 신들 간의 전쟁 아마겟돈, 절정에 달한 하나님의 분노는 곧 영적인 자기 희생, 영적인 순교로 이어졌다. 하나님은 밀실에서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마귀 영의 공급 통로와 은신처가 바로 자존심이라는 것을 밝혀내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침내 자존심 마귀를 완전히 박멸소탕하고 에덴동산을 회복함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6천 년간 계속된 마귀와의 쫓기고 쫓는 치열하고 지루한 전쟁에서 승리하시어 마귀에게 승리의 매서운 분패를 보이고, 당신의 분패를 회복하시는 데 성공하신 날이다. 전지전능한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으로 거듭난 것이다.

인간사, 하나님을 욕보인 강간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서 6천 년 동안 감추어졌던 마귀의 모든 계략과 비밀이

# 분노하라! 본패를 보일 때까지

밝혀졌다. 에덴동산에서 있었던 선악과 사건의 진실과 선악과의 정체 그리고 그 선악과라는 원죄가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머물러 있으면서 유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모두 풀여졌다. 정말 분노의 치가 떨리고 소름 돋는 사건 결과였다.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게 강제로 겁탈당한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6천년 동안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정조와 권능을 강탈해 온 강도, 강간, 살인자가 다름 아닌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사랑해 온 자존심이라! 천인공로할 6천 년 연쇄 강도, 강간, 살인의 추적이 내 핏속에 자존심으로 녹아 있었다니!

분노하라! 본패를 보일 때까지

이제 '나' 라는 자존심에 대한 실체가 밝혀진 이상 인간의 말을 멈추고, 글을 거두어야 한다. 자존심이 요구하는 일체의 욕망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분노의 기도로서 예리하게 성령의 칼날을 세우고, 불길을 뿜어 위선의 탈자존심을 가루도 존재도 없이 완전히 박멸소탕 해야 한다.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의 분패를 회복하는 최후 승리의 순간까지.

인천상륙작전의 명장 맥아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작전에 실패하

면 또 다시 작전을 펼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병사와 전투 준비를 잃게 되어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최대의 적은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다. 분노의 화살을 나 자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의 시위를 지금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정해서 자신과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마귀는 그 허점을 이용해 하나님에게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분노란 내 마음과 핏속에 잔존하는 자존심 마귀에 대해 무량대수없는 일 만민의 자비심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철저한 정신무장의 상태이다. 가장 아름답고 선행 분노는 자존심을 100% 죽여서 하나님을 살리겠다는 무자비한 박멸소탕 기도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패를 되찾게 해주는 희생적인 분노이다. '본패를 보인다' 함은 말이나 글로써의 설명이 아니라 마음먹은 것을 몸으로 익혀 완성의 결과를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의 종말, 감로 이슬성신

탐진치 3복에 증폭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빈곤에 허덕이는 영이 곧 '나' 라는 자존심 마귀이다. 출세욕, 명예욕, 혈육의 정, 정욕, 식욕 등에 늘 증폭되어 굶주려 있는 빈곤의 신 자존심을 마음과 핏속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로 이슬성신이다. 자존심이 머문 내 이롭게 대한 기억의 흔적까지도 생각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

초심으로 돌아가라, 본패를 보여라

이긴자 구세주가 되교자 하는 천군천사들의 초심은 언제나 1980년 10월 15일 아마겟돈 전쟁에서 본패를 보이신 이긴자 구세주가 가졌던 그 격렬한 분노의 초심을 만나 감로 이슬성신, 생명수만큼 불사영생을 이루는 이긴자 구세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생명수라 했다.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정도가 생수가 연결될 정도로 진해져 생수 은혜가 연결된다고 했다. 예언서나 경전의 내용에 기댄 영동한 망상에 의한 기다림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 불사영생은 이긴자 구세주에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긴자 구세주로서 세상 씩을 양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고 감로 이슬성신으로만 극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불사영생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을 놓도록 설득하는 설명이나, 자존심이 요청에 의한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신선이 이슬을 먹고 살 듯.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살게 합소서.\*

안병천 수사

<b>승리신문</b>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환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